

합평회 싸이퍼 및 소감

1. 금유빈 - 기획

소감 : 기획 재미있어요. 팜플렛 디자인, 어도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연희와 현빈에게 감사. 더 잘하는 기획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2. 송하연 - 기획

소감 : 첫 스태프. 캐스트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기획팀장과 연출의 의견이 다름. 이런 점이 헛갈려서 아쉬웠다. 키스텝 너무 좋아요 bb

3. 손현빈 - 기획팀장

소감 : 어... 프로필과 팜플렛 사진 - 처음 공지대로 못 갔음. 처음을 빠르게 정해야함. 공연 주차 많은 사람이 참여 x 개강 주차에 하면 안될 것 같음. 토요일에 공연을 끝내면 좋겠다는게 선배들의 입장! - 그러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 합평회에 참여한 많은 인원들이 일요일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함. 그리고 뭐.... 그건 뭐 이제 듣고 넘겨버리구요. 여기??지

4. 장선웅 - 무대

소감 : 이번 무대는 윤서가 수고 많았음. 고생했음. 무대 팀원이 젤 많지만, 실제로 무대 제작이 넘 많고, 설치도 많음. 팀원 숫자에 비해 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 각자에게 분담되는 것이 너무 많았음. 미리 만들어야하는 것이 너무 많았음. 빠르게 만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너무 좋았다. 참여해주신 무대팀원 분들 너무 고맙다.

5. 엄태웅 - 무대

소감 : 캐스트만 해보다 이번에 스태프로 참여. 스스로 부끄러울 만큼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음.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움. 참여율과 관련해서 무대팀이 항상 많은데,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 팀장님이 고생 많음.

6. 조운서 - 무대팀장

소감 : 무대팀원을 많이 보지는 못함. 할 것도 많고 제가 제대로 단합을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마지막에 자신또한 너무 바빴음.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같이 나와준 팀원들과 키스텝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7. 김동건 - 조명

소감 : 두 번째 조명팀. 재욱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찬사를 드리고 싶네요. 서로 회의하는데도 동기가 부족하고, 팀장 혼자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

조명팀과 친해지는 일이 많이 부족... 공연장에서는 많이들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잘했던 것 같아요. 무대는 조명과 끝에 가서 디벨롭을 할 수 밖에 없음. 공연장에서의 변수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8. 한광현 - 조명

소감 : 재욱이에게 리스펙을... 개인적인 성찰을 해보자면 3연속 조명이예요. 권태기가 와서 열심히 안 한 듯.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나마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팀장으로써 굳건히 서

있어서 좋았어요. 팀장 덕분에 잘 진행된 듯..

9. 이재욱 - 조명팀장

소감 : 조명 팀원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연출은 딱히 문제 없었다. 조명적인 부분에서는.. 음향 깔끔했고요. 기획도 잘 하셨습니다. 무대 시안이 너무 늦어서 그것만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더 빠르게 무대 시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벽의 위치... 다음 연출님은 조율에 있어서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팀원들에게 명확히 일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미안..... 팀원들이 마지막 가서 오퍼 연습하는 게 참 보람찼어요... 차라리 조명팀이 초반에 함께 관극을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장선웅 : 말이 바뀌어서 어려웠다. 당일 날 바뀔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김동건 : 실제 우리가 공연하는 극장에서 관극을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

10. 이채연 - 음향

소감 : 스스로에게 만족함.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공연을 하면서 변경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팀원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어려웠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공연장에서 오퍼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캐스트가 짜증 안내서 좋았다. 팀장도 계속해서 기회를 줘서 좋았다.

11. 장연희 - 음향팀장

소감 : 팀원들... 정말 상상력이 좋은 팀원들.. 숙제도 잘해줘서, 수월하게 음향을 셀렉할 수 있었음. 공연 오퍼를 팀원 모두 참여. 공연 전 리허설 오퍼해보고, 한번씩 공연을 봐서 잘 된 듯. 공연진 전체적으로는 리허설과 뒷깍이의 차이점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음. 뒷깍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늘어지는 경향이 강했음. 힘을 불필요하게 빼는 게 많음. 오퍼팀 상주 시간은 매우 빠빠한데, 캐스트 상주 일정은 유동적인 게 참 아쉽네요. 공연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도 피곤해지는데, 뒷깍이와 리허설이 뒤로 갈수록 그루미하지 않았나..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려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다들 고생 많았고, 개강주차에도 고생하셔서 구웁.. 큐를 숙지해서 연출 없이 뒷깍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2. 의소분 팀장

소감 : 이번 공연 막판에 놓친 것이 많아 아쉬워요. 키스텝들 감사감사.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있으면 와주세요.

13. 조연출

소감 : 개강 주에 공연을 잡는 것이 아쉬움. 캐스트 일정 잡는 것에 있어서도, 아쉬웠음. 일정한 원칙 안에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쉬움, 웬만하면 방학 중에 하도록. 무대라는 것이 이상향과는 많이 다름. 무대 벽을 옮기는 것, 액자에 조명을 쏘는 것 등 공연장 가서 하는 게 많았음. 조연출의 역할에 대해서 연출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듯. 매번 다른 연출이기에 알아갈 필요가 있음.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이전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듯... 23년 워크숍 공연에서 남자 캐스트가 반이 찢린 것으로 알고 있다.

조명팀장 : 그럼 워크숍 공연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답변 : 각각 스케줄 표를 짜서 22년에 연습일정을 짬. 23년에는 일괄적으로 6-10시까지...

이채연 : 23년 워크숍이 가능했던 것은 캐스트들이 열정과 열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

장연희 : 사람을 많이 뽑으면, 무엇이 팍이고 무엇이 당첨인지 잘 몰라요. 물을 줘도, 씨앗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물을 많이 주시길... 당첨 축하드려요. 여러분

14. 이지수 - 조명

소감 : 너무 재밌고, 좋았고요. 다들 공연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해봤던 조명 중 켈 재미있는 것 같아요.

15. 연출

소감 :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연출 이전에 연케팀장으로써 말씀드리자면, 캐스트 일정관리가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분명히 된다해서 뽑았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좌송해요. 사실은 이번 공연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본인이 소통을 못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바를 본인만 알고 있음. 절대 말 안하다가, 나중에 알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특히나 무대와 음향. 무대 1차 시안을 아무렇지 않게 넘긴게 참 아쉽고요.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알아야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사과를 드립니다. 캐스트 연습과정에서는 다행히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캐스트의 연습에 임하는 진심도는 어쩔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팀들에 대한 소감은 인수인계서를 참고해주세요. 디자인과 선배님의 대응은 기획팀장 고생 많았어요. 외부극장에서 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닌데 고생해줘서 감사. 조명팀에 요구했던 것이 파란빛이었는데, 변수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켈라틴 내구도 등등... 잘 대처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프로그램 사용이 매우 인상깊었음. 무대팀은 가장 고생했구요. 무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벽 이동과 구현을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무대 시안 조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너무 미안했습니다. 소통 불능의 책임이 이쪽에 큰 듯. 1,2막 전환은 암전 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공연 4일 전에 만든 것이 참 미안하네요.... 공연 뒤에서 고생한 무대크루들 감사. 음향팀 : 효과음이 많은 극임에도.. 빠르고 정확한 효과음들을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본인이 우유부단한 것이 음향팀장에게 너무 미안... 뒷좌이에 대한 피드백은 마지막 대사 치고 넘어가는 것이 본무대랑 좀 다를 것 같아 일부러 길게 뽑은 것이 아닌가... 마지막에 가서 변화가 많아 아쉬워요. 의소분은 의상확인을 마지막에 가서 정한 게 너무 많아 아쉬워요. 이외에는 팀장님이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연출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많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줘서 감사. 이전 공연에 캐스트를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최근의 장면

연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출진에 있는 것이 큰 도움을 주는 듯. 연출이 함께 같은 말을 해야 했는데 미리 말을 맞추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네요. 스탭이나 캐스트들에게 본인이 힘든 것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결정을 참 잘하지 못해 죄송하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기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향팀장 : 조연출 고생 많음. 음향 큐가 많았는데 다 틀어져서 감사.

심원균 - 무대

소감 : 그냥 사실 어 원래 캐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정말 아쉽구요. 두달 간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대가 바램을 잘 충족해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백스테이지에서 영접의 시간을 보내서 뿌듯했습니다.

이하윤 - 캐스트

소감 : 모든 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캐스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